

# 농수축산 친환경으로 경쟁력 높여... F1·개발사업은 '기대 이하'

## 민선 5기 전남도정 결산

박준영 전남지사는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을 민선 5기의 최대 과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농업·농촌·농민 살리기 ▲생물산업 등 미래산업 육성 및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등 개발사업 추진 ▲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 등 국제 이벤트 성공 개최 등을 내놓았다. 4년이 지나 퇴임을 앞둔 박 지사의 성적표는 농수축산업 경쟁력 강화 부문 '우수', 미래산업 구상 및 육성 부문 '보통',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프로젝트) 등 개발사업 및 F1 부문 '기대 이하'라는 데 큰 이견은 없어 보인다.

◇인구 감소율은 낮아져...고령화 심각 =박 지사는 4년 간 획기적인 인구 감소 해결책은 내놓지 못했지만, 감소율은 낮

고령화 심각 불구 획기적 인구감소 해결책 못 내나

지역별 미래 산업구상 우수평가... 성공여부 미지수

했다. 지난 2003년 말 73만7207세대 202만 442명으로 간신히 200만명을 넘었던 전남도의 인구는 5년이 지난 2008년 말 77만 3087세대 193만8690명으로, 다시 2013년 말 81만5769세대 193만1716명으로 줄었다.

급감했던 추세를 다소 완만하게 바꿔놨지만, 인구는 여전히 줄고 있다. 질적인 측면에서는 문제점이 내재돼 있다. 65세 고령인구가 2013년 말 무려 19.6%에 달하고 있다. 또 외국인 인구는 지난 2003년 말 662명에서 10년이 지나 2만4544명으로

늘었고, 인구 감소 속에 세대 수는 오히려 증가하면서 '소가족화'가 지역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농수축산업 경쟁력 UP... '친환경' 구축 =전남도는 박준영 지사 취임 이후인 지난 2005년부터 '전남농업의 운명을 바꿔보자'는 구호 아래 '3농 정책'을 도정 역점 시책으로 추진했다. 귀농·귀촌 바람이 이후 처음으로 늘어나기도 했다. 2006년부터는 친환경 축산정책을 내놓고 2008년 '녹색축산', 2011년 '동물 복지형 녹색축

산'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지난해 말 기준 친환경 축산물 인증 농가가 3872호로 전국의 36%를 차지하고 있다.

또 전국적으로 수산물 생산량이 줄어든 가운데 전남에서는 지난해 오히려 생산이 늘어 전국 생산량 대비 47%를 차지했다. 세계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 둔화와 일본의 수입감소에 불구하고 지난 2월 말 현재 수산물 수출액은 2024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1726만 달러보다 17.2% 증가했다.

김교 전복 등 수산물 주석회사도 잇따라 설립하는 등 전남도는 농수축산 분야에서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냈다.

◇미래산업 구상은 바람직...성공 여부는 미지수 =울산산단에 있는 전남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순천 해룡산업단지 신소

재센터, 목포 대양산단 세라믹센터, 대불산단 전남과학기술진흥센터, 고흥 고분자 융·복합소재산업지원센터, 장성 마이크로 레이저시스템산업지원센터, 보성 초경량 소재 자동차부품 생산지원동, 영광 풍력시스템 평가센터 등이 박 지사의 재임 기간 잇따라 문을 열었다. 이들 기관이 전남 동부권·서부권·중부권 산업구조의 중핵산업통상지원부의 전국 13개 시도 대상 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등급'을 받을 정도로 계획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한 인정을 받고 있다. 문제는 그에 맞는 기업 유치, 지역경제 성장 등 실적이다.

◇각각 개발사업, F1 등은 '기대 이하' =박 지사는 민선 5기 출범과 함께 서남해

안관광레저도시, 은하의 섬 프로젝트, 남해안 선벨트 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 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나주 국제농업박람회 성공 개최를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F1대회는 누적적자가 1900억원대에 달하는 데다 올해 개최가 무산돼 민선 6기 최대의 난제로 전락했고, 여수세계박람회장도 폐막 이후 사후 활용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또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등도 아직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민간자본 유치에 한계가 있는데다 정부 지원 미흡, 세계 경제 불경기 등이 근본 원인이지만, 전남도의 '전략 부채'를 타하는 목소리도 있는 것이 현실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고 이태영선생 탄생 100주년 기념식

여성운동가 및 법률가이자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창설자인 고(故) 이태영 선생 탄생 100주년 행사가 양승태 대법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열렸다. /연합뉴스

## 'KTX 광주역 경유안 폐기' 강력 반발

북구청장·시의원 등 광주시장 인수위 비난

민선 6기 광주시장 직무 인수위 측의 KTX 광주역 진입에 대한 부정적 입장에 대해 북구지역 정치권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송광은 광구 북구청장이 18일 인수위 측에 강하게 항의한데 이어 북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광주시의원들도 인수위를 강하게 비난하는 등 반발했다.

송 청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인수위 팀장의 사적인 견해라고는 했지만, 앞으로 광주역 진입에 대해 부정적 방향으로 결론을 내는 순간 저 뿐 아니라 북구의회, 민간단체 등이 반발할 것이다"

며 집단 반발 움직임을 전했다.

문상필 광주시의원(북구3)도 이날 "인수위 TF팀장의 KTX백지화 발언은 시장 당선자의 시정철학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철저히 시민을 무시한 경솔한 행동이었다"며 "당장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시 민선 6기 시정운영방향을 결정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광주발전을 준비하는 시작부터 시민을 무시하고 시민의 분란을 조장하는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행정경험이 부족한 시장 당선자에 대한 시민의 우려와 불신을 현실화 시키는 것이

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오섭 광주시의원(북구2)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시민들의 의사를 철저히 배제한 채 국토부의 반대입장만을 가지고 KTX 광주역 경유안 폐기를 검토하는 것은 광주시의 도심공동화의 문제를 도외시키고 지역상생발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불통의 극치"라고 주장했다.

한편, 민선 6기 광주시 직무 인수위인 '희망광주 준비위원회' 이명규 팀장은 전남 기자회견에서 "KTX 광주역 역방향 진입 방안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등 무리가 있는 것이다"며 KTX 광주역 경유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내놓았다.

/최영기기자 cki@kwangju.co.kr

## 중 크루즈 관광객 1만6000명 5일간 90억 썼다

여수엑스포·낙안읍성 등 관광

관광향을 통해 전남에 들어온 중국 관광객 1만6000명이 5일간 여수·순천·곡성 등지에서 90억원 남게 소비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남도는 크루즈 관광객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큰 것으로 보고 크루즈 관광산업의 육성에 나서고 있다.

전남도는 18일 "지난 4월 중국 우시엔지 기업을 시작으로 5월 완메이사, 6월 5회에 걸쳐 암웨이사 우수 고객과 임직원들이 찾아오는 등 전남이 중국 주요 기업의

인센티브 크루즈관광지로 각광받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4일부터 12일 사이 5일간 전남을 찾은 중국 암웨이사 단체관광객 1만 6000명은 광양항으로 입항해 순천 낙안읍성과 순천만자연생태공원, 곡성 기차마을, 여수 오동도 등지의 관광, 여수엑스포공원의 갈라디너쇼 및 케이팝(K-POP) 공연 등을 즐기며 90억여원의 경비를 썼다.

여수엑스포공원 갈라디너쇼에서는 3200여명이 한 번에 같은 장소에서 식사를 하는 장관을 연출하기도 했다.

도는 대규모 관광객 유치에 필요한 컨벤션 인프라가 아직 구축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여수엑스포공원 내 시설, 인근 호텔 등과 연계한다면 이번 중국 암웨이사 크루즈 인센티브 관광처럼 대규모 행사를 치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남에는 지난 2004년 일본 크루즈선 피서픽 비너스호가 첫 입항한 뒤 2012년 여수항 크루즈 전용부두를 완공했으며, 지난해에는 로얄 캐비안 선사의 14만t급 대형 크루즈선이 광양항에 입항하는 등 크루즈선들이 잇따라 찾고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

## 亞문화전당 특수법인화 논란

추진단 '개관전에 매듭'

광주시 "문체부 소속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이 내년 개관하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의 운영방식을 특수법인화하겠다는 의견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단장 김성일)은 18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향후 운영 방식과 관련해 "정부가 추진 중인 특수법인화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 우려가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른 지나친 우려"라

고 밝혔다.

김성일 단장과 추진단 관계자들은 이날 서울 인사동 음식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내년도 개관을 앞두고 문화전당의 운영 주체 문제를 조속히 매듭지어야 한다"며 이 같은 입장을 강조했다.

현재 국회엔 문화부가 지난해 제출한 '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과 새정치민주연합 박혜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 개정안이 경합해 계류중이다.

정부는 아시아문화전당을 특수법인화해 그 운영을 아시아문화원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을 받은 아시아문화원 등에 대해 국가가 경비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정

부안의 맹점은 국가 지원이 의무화돼 있지 않다는 것으로, 자칫 연간 수백억원대로 예상되는 문화전당 운영 경비를 광주시가 덤터기 써야할 가능성도 크다.

반면 광주시,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 등과 협의한 박 의원 대표발의안은 아시아문화전당을 원칙적으로 문체부 소속기관으로 하고, 정부의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공익적 기능이 낮은 일부 조직은 특수법인화도 가능하다는 입장에 포함돼 있다.

이와 관련, 박혜자 의원은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일부 특수법인화도 필요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정부 소속기관으로 해 국비지원을 의무화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김성일)단장의 발언 의도를 정확히 파악해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연합뉴스



베르사이유의 지지않는 태양 "짐이 곧, 국가다!" \_루이14세

Le Spectacle Musical

# le Roi Soleil

뮤지컬 태양왕

6월 21일(토)~ 22일(일) |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주최 | [CBS] 광주 CBS KCTV 광주방송 주관 | [공연마루] 제작 | (주)태양왕 문의 | 1588-0766 예매 | 티켓마루, 인터파크

협찬 | 광주광역시 전남개발공사 광주은행 [주]초정 VEGETARIAN 현대삼호중공업 농업진흥본부 한국수력원자력 LH AMORE PACIFIC 농협광주지역본부 보혜